

조선 중기 서산대사와 벽암대사의 가사 유물에 대한 연구

강 선 정* · 조 우 현⁺

성균관대학교 박사수료, 송광사 학예연구원* · 성균관대학교 의상학과 교수⁺

A Study on the *Kasaya* Remains of Great Monk *Seo San* and Great Monk *Byeok Am*, from the Middle Period of *Joseon* Dynasty

Sun-Jung Kang* · Woo-Hyun Cho⁺

Ph.D. Candidate, Dept. of Fashion Design, Sungkyunkwan University,

Curator, Songgwang-sa Museum*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Sungkyunkwan University⁺

(투고일: 2010. 10. 25, 심사(수정)일: 2010. 12. 15, 게재확정일: 2010. 12. 27)

ABSTRACT

The present research aims to consider the real remains of 2 suits of *Kasaya* owned by the *Hwaeom Temple*(華嚴寺) based on research results about *Kasaya* in the meanwhile. The present research on 2 suits of remains which are Royal gifts given to monk soldiers in case of a national crisis of the *Joseon Dynasty* has a big meaning in examining characteristics of *Kasaya* and grasping characteristics and structure of the 17th century's *Kasaya* of the *Joseon Dynasty* through dense survey and analysis according to components. If examining characteristics of *Kasaya*, the *Kasaya* of the Great Monk *Seo San*(西山) is composed on the basis of an initial form of Sun and Moon Light Patch's generation and the *Kasaya* of the Great Monk *Byeok Am*(碧巖) has a form that is separately attached through production of embroidery patch as a process of being settled down. If examining what surrounds gold thread in the girth and expression of Sumeru and *Chaeunmun*(彩雲紋), the composition of a form similar to an insignia badge, so because this is a Royal gift, this can be estimated as being analyzed in a Buddhism aspect by devising a design from the insignia badge at the time, with a meaning like an official uniform given to a monk. Although the insignia badge is a square, it seems that the Sun and Moon Light Patch is made as a rectangular form corresponding to the structure of *Kasaya*. In addition, it is thought that what the *Samjoko*(三足鳥) idea which is a symbol of the Sun based on Buddhism and Taoism is used together with *Yijoko*(二足鳥) even in expression of the Sun and Moon Light Patch in the *Joseon Dynasty* which was a Confucian country has a relationship with what a bird was expressed in the insignia badge of winged animals.

Key words: Great Monk *Byeok Am*(벽암대사), Great Monk *Seo San*(서산대사),
insignia badge(흉배), *Kasaya*(가사), Sun and Moon Light Patch(일월광첩)

I. 서론

인류가 지구상에 최초로 등장하여 자연과 일정 정도의 거리를 둔 문명(文明)의 세기로 진화한 시기는 언어구사와 도구의 사용을 통한 의(衣)·식(食)·주(住) 생활의 발전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은 선학(先學)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특히나 의생활은 식·주생활과 달리 인간의 직접적인 생존연관성은 덜한 반면에 문화적 의미는 더욱 각별하였음이 인류사의 다양한 유물을 통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는 의복이 인류가 동물과 구별되는 가장 의미 있는 역사유물이자 문화적 상징으로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복식(服飾)문화에 대한 연구가 인류사를 이해하는 주요한 주제로 자리 잡게 된 까닭이다. 따라서 종교복식의 생성과 전파과정을 살펴봄에 되면 해당 종교의 교리 체계에 대한 각 민족의 이해와 문화융합 등의 다양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종교 자신의 정체성을 대외적으로 표현하는 상징물인 공식적인 의례복은 이러한 변화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가 될 것이다. 이런 연유로 불교복식에서 가장 상징적인 법의(法衣)인 가사(Kasaya)가 한반도로 유입되어 조선 중기인 17세기에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였는가를 연구해 보는 것은 불교라는 사상체계의 변화만이 아닌 동시대 일반복식과의 교류과정을 문화사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소재라 판단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그간 가사에 대한 연구 성과를 기초로 하여 화엄사¹⁾ 소장의 가사유물 2점의 실물을 조사 연구한 것이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병자호란 당시 의승군의 활약과 승려들의 국가재건 사업의 적극적 참여 그리고 국난 후 전쟁으로 죽은 이들과 민심을 달래기 위한 수단으로 왕실에서는 불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많은 수의 괘불(掛佛)조성과 사찰의 중창불사는 전쟁 시 사찰이 중요 군사 거점이었고 약탈의 대상으로 엄청난 손실을 가져온 것에 대한 국가적 지원으로서, 이러한 불사가 17세기 이후로 많이 이루어져 당시 불교와 왕실은 서로 협력관계였다고 볼 수 있다.²⁾ 화엄사 소장의 서산(西山)대사와 벽암(碧巖)대사 가사 2점은 국란으로 부터 나라를 구한 대표적 승려의 유물로서, 본 연구는 2점

가사의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심층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조선 중기 17세기 가사의 특징과 구조를 구체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조선의 유교문화권내에서 불교복식인 가사의 존재를 문화사적인 상호교류의 측면에서 살펴봄으로서 당시의 사상체계 전반에 대한 내용들도 파악될 것이라 사료된다. 나아가 선행연구들에서 확인된 연구대상 가사 2점에 대한 표기의 혼용과 내용상의 오류 등도 바로잡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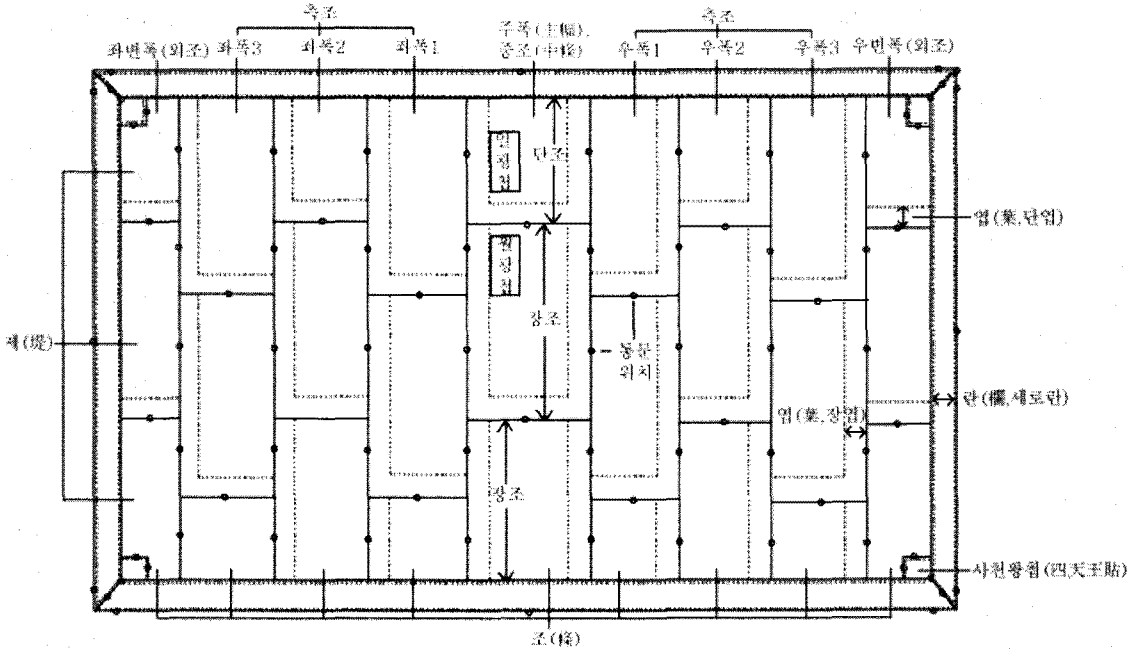
II.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1. 연구대상

가사(袈裟)란 출가한 불교 승려가 장삼 위에 입는 법복(法服)이다. 불교 발생지인 인도에서 시작되어 중국을 통해 우리나라로 들어 온 가사는 산스크리트어(梵語)의 카사야(Kasaya)를 중국에서 가사(袈裟)라 음역(音譯)하였고, 한국에서도 가사(袈裟)라 이르며, '선명하지 않다, 곱지 않다(濁)'의 뜻으로 괴색(壞色), 부정색(不正色), 적색(赤色), 염색(染色) 등으로 번역된다.³⁾ 가사는 법계(法階)에 따라 조를 구별하여 안타회(安陀會), 울다라승(鬱多羅僧), 승가리(僧伽梨)로 분류된다. 그중 안타회는 5조의 소의(小衣)로 취침시의 옷이며, 울다라승은 7조의 중의(中衣)로 걸가사 이며 설법, 예불, 독경, 좌선(坐禪), 공양 및 포살 할 때 입는 옷이다. 승가리는 9조부터 25조까지 가사의 총칭으로 위의(威儀)를 갖추고 대중에게 설법할 때 입으며, 현재 9조 이상이면 모두 대가사라 칭한다.⁴⁾ <그림 1>은 9조 가사 전개도와 세부명칭에 관한 내용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선조대왕의 하사품인 서산대사(西山大師:1520~1604)가사와 인조대왕 하사품인 벽암대사(碧巖大師:1575~1660)가사 2점으로, 각각 25조와 19조로 승가리(僧伽梨)에 속하는 대가사이다.

서산대사의 법명은 휴정(休靜)이고, 자(字)는 현응(玄應)이며, 호(號)는 청허(淸虛)·서산(西山)으로 속성(俗姓)은 최(崔)씨이다.⁵⁾ 묘향산 즉, 서산에 오래 있어 서산대사라 했다⁶⁾. 선조25년(1592)에 일어나 전후 7년간을 휩쓴 임진왜란은 우리 역사상 최대



〈그림 1〉 9조 가사 전개도와 세부명칭

- 조(條): 조는 세로로 이어 붙인 천을 말하며 규격을 상징한다. 하나의 조에는 긴 부분의 장조(長條)와 짧은 부분의 단조(短條)가 있다.
- 제(堤): 제는 가로의 선을 말한다.
- 엽(葉): 조와 조사이에, 제와 제사이에 있는 부분을 말한다. 장엽(長葉)은 세로 의 엽이고 단엽(短葉)은 가로의 엽을 말한다.⁷⁾
- 폭(幅): 가사를 정면에서 볼 때 중앙에 위치한 조를 주폭(主幅), 왼쪽의 조를 좌 폭(左幅), 오른쪽의 조를 우폭(右幅)이라 한다. 주폭에서 가까운 쪽부터 좌폭1, 우 폭1의 순서로 하며 가장자리 조는 좌변폭(左邊幅)·우변폭(右邊幅)이라 한다.
- 란(欄): 가사의 가장자리에 천을 붙인 것을 말한다.
- 침(貼): 가사에 덧붙이는 장식물로 일월광침(日月光貼)과 사천왕침(四天王貼)이다.

의 비극이었는데 이때 호국제민(護國濟民)의 기치 아래 승군(僧軍)을 일으킨 이가 서산대사이며 초대승군 대장이었다. 대사가 혁혁한 공을 세우니 선조는 『팔도선교도총섭(八道禪敎都摠攝)』이라는 최고의 승직을 내렸다. 그러나 대사의 나이 70이 넘어 그 직책을 제자인 사명(四溟)에게 물려주고 묘향산으로 돌아가자 선조는 대사에게 『국일도대선사선교도총섭부종수교보제등계존자(國一都大禪師宣敎都摠攝扶宗樹敎普濟登階尊者)』라는 최고의 존칭과 함께 정이품(正二品)의 당상관직위를 하사하여 나라의 공과 불교의 덕을 치하하였다.⁸⁾ 해남 대흥사 청허서산대사 비문(碑文)에는 의(衣)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은 없으나 “정여립(鄭汝立)의 역모사건에 요승인 무업(無業)의 무고로 체포되었으나, 무죄임이 밝게 드러나자 선조

임금께서 그 이름을 듣고 곧 풀어주었다. 그리고 왕궁으로 불러 시(詩) 일절(一絶)과 묵죽도(墨竹圖) 일점(一占)을 하사하면서....., 선조는 더욱 칭찬하고 후한 선물을 하사하여 산으로 돌아가게 하였다.”⁹⁾는 내용이나 사명에게 팔도도총섭직을 물려주고 묘향산으로 돌아갈 때 존호를 하사한 것으로 보면 이때 승려에게 가장 상징적인 가사를 같이 하사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2〉는 해인사 홍제암(弘濟庵)소장의 서산대사진영으로 홍가사를 착용하고 있다.¹⁰⁾

벽암대사(碧巖大師)는 법명은 각성(覺性)이고, 자(字)는 정원(澄圓)이며, 호(號)는 벽암(碧巖)으로 속성(俗姓)은 김(金)씨 이다.¹¹⁾ 임진왜란 때는 스승 부휴선수(浮休善修; 1543~1615)를 따라 영남과 호남의 내륙에서 의승군 활동을 펼쳤으며, 1624년 팔도도총



〈그림 2〉 서산대사진영
한국의 불화 권40, 2007, p. 170.



〈그림 3〉 벽암대사진영
한국의 불화 권40, 2007, p. 178.

섭(八道都摠攝)으로 남한산성(南漢山城)을 축조해 병자호란 당시 인조가 피신하도록 도왔다. 또한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승병 3000명으로 항마군(降魔軍)을 조직하여 전장에 나선 공적으로 1640년 『삼남도총섭(三南都摠攝)』의 직책이 수여되었으며¹²⁾ 인조로부터 '보은천교원조국일도대선사(報恩闡教圓照國一都大禪師)'의 칭호를 하사받았다. 송광사고(松廣寺庫)¹³⁾에 수록된 의(衣)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 광해군이 궁궐 뜰에서 국문할 때 그 도기가 높고 말이 확실하고 정당함을 보고 마음으로 이상히 여기어 묶인 줄을 풀어주었다. 그리고는 오랫동안 자문을 구하니 광해군이 매우 기뻐하여 비단 두루마기 2벌을 하사하였다. ... 무오년(1618) 가을에 신흥사로 옮기니 ... 이듬해(1619)가 되자 ... 광해군이 청계사에서 재를 열고 궁궐의 사신을 보내 대사를 맞이하여 설법하게 하고 금란가사와 푸른 수를 놓은 장삼을 주었다. 인조대왕이 임금 자리에 오른 이듬해 갑자년(1624) 조령에서 남한산성으로 대사를 불러 팔방도총섭으로 삼았다. 일을 마치자 보은천교원조국일도대선사라는 호를 하사했고, 또 의발을 내리고 사신을 파견하여 술을 내어 위로하였다. ... 다만 성덕이 광대하니 감히 한번 마시지 않을 수 없습니다. ...』¹⁴⁾ 이와 같이 벽암대사와 관련하여 의(衣)를 하사(下賜) 받은 내용이 많이 남아 있다. 〈그림 3〉¹⁵⁾은 해인사 국일암

(國一庵)소장의 벽암대사 진영으로 홍녹첩상(紅綠貼相) 가사를 착용한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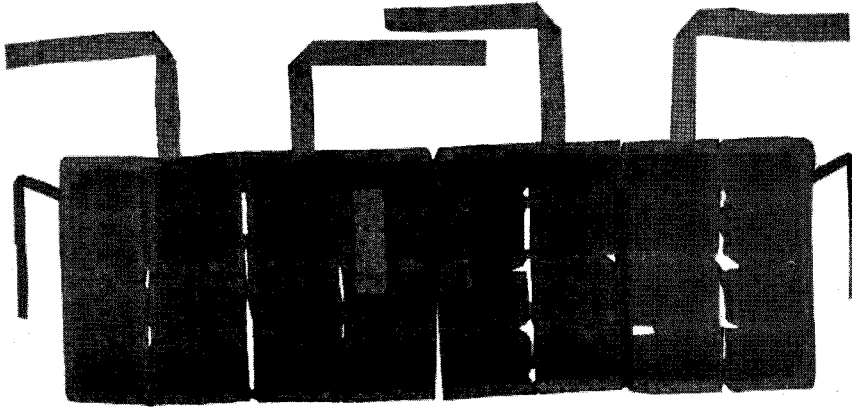
2. 연구방법

서산대사와 벽암대사의 비문(碑文)과 행장(行狀) 등 문헌고찰과 2차례의 실물조사를 병행하였다. 1차 조사는 2010년 10월 1일부터 2일간 화엄사에서 실시되었으며, 2차 조사는 2010년 12월 26일부터 2일간 실시되었다. 밀도 있는 유물조사와 분석을 위하여 사용한 기기는 색채측정을 위하여 분광측색기(Color techno system Co., JX-777, Japan)를 활용하고 밀도와 조직은 재물대 고정식 고배율 영상 현미경 Mi-9000, 루페(Specwell 8.5' with ExtraShort Focus, JAPAN)를 사용하였다. 두께측정은 Mitutoyo 다이얼 게이지, 치수와 봉계는 줄자와 확대경을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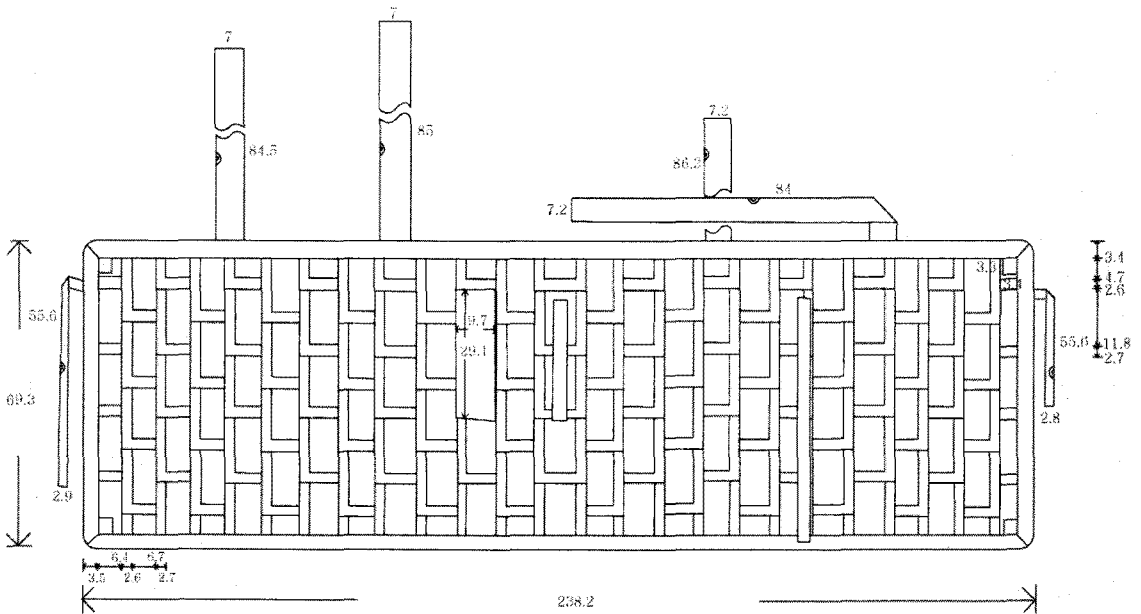
Ⅲ. 서산대사 가사와 벽암대사 가사의 조사 내용

1. 서산대사(西山大師;1520~1604)가사의 조사 내용

유물의 구조와 구성요소별로 형태, 치수, 직물, 색



〈그림 4〉 서산대사가사, 사진: 화업사 제공



〈그림 5〉 서산대사 가사 전개도

채, 문양, 발문을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그림 4〉은 서산대사가사의 실물사진이며, 〈그림 5〉는 가사 전개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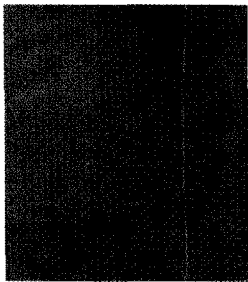
서산대사 가사의 구성은 25조 4장 1단이며 치수는 가로 238.2cm와 세로 69.3cm이다. 품계별로 보면 상상품(上上品)에 속하는 홍색의 포도단으로 된 홉가사이다. 색채값은 대표적인 바탕색은 H-1.50YR · V-4.41

· C-8.31 인지색은 17-1440TPX이다. 란(欄)은 H-0.40YR · V-5.63 · C-9.98 인지색은 18-1354TPX이고, 기타 색상은 〈표 1〉에서 정리한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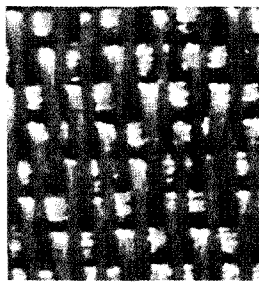
문양은 포도송서문(葡萄松鼠紋)이며〈그림 6〉, 조직을 보면 지조직은 5매 2뿔의 경주자조직이고, 문조직은 5매 2뿔의 위주자조직의 단(緞)으로 〈그림 7〉, 〈그림 8〉이다. 두께는 0.2167mm이고 바늘 땀수는 1cm

<표 1> 서산대사 가사의 기타 색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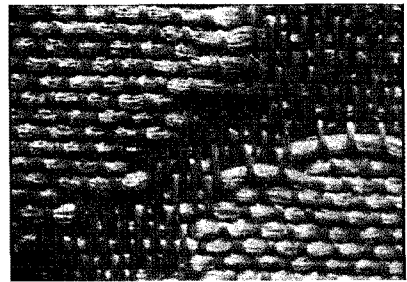
의복명칭	인지색		측정값		
	측정부분	Pantone	H	V	C
화엄사 선조하사 가사	겉	17-1440TPX	1.50YR	4.41	8.72
	난	18-1354TPX	0.40YR	5.63	9.98
	난의 문양	16-1347TPX	9.08YR	5.41	6.0
	변색	-	6.25YR	5.58	7.03
	파란 끈(문양)	16-5806TPX	3.13BG	6.32	1.51
	파란 끈(바닥)	16-5304TPX	3.96BG	6.41	1.53
	양쪽 끈	17-1046TPX 18-1160TPX	3.51YR 3.80YR	4.63 4.72	7.85 7.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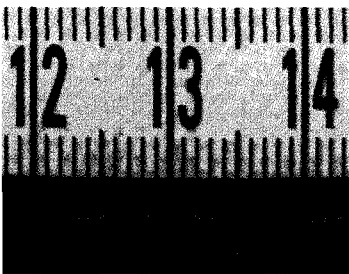
<그림 6> 포도송서문, 2010. 12. 26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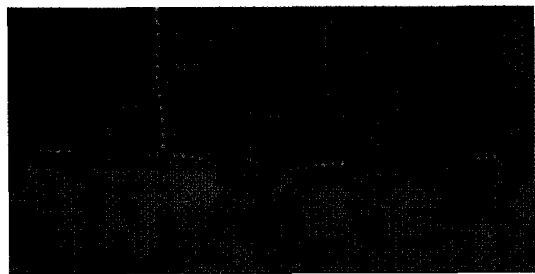
<그림 7> 5매 2뿔의 지조직, 2010. 10. 1 조사



<그림 8> 위주자조직의 문조직, 2010. 10. 1 조사



<그림 9> 엽(葉) 부분의 띠수, 2010. 12. 26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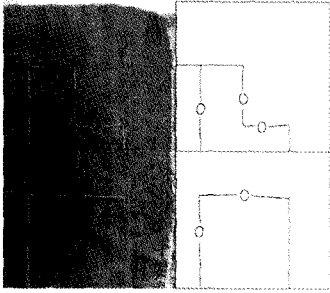


<그림 10> 띠의 상침부분, 2010. 12. 26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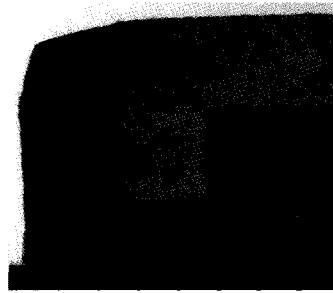
안에 평균 8~9개씩 들어가 있으며 온박음질이다(그림 9). 가장자리에는 띠와 바탕을 고정시키기 위해 전체 상침을 했고 바탕쪽 부분은 3~5뿔씩 번갈아가며 상침했다(그림 10). 부처가 드나드는 문의를 가진 통문(=通門佛)이 있으며 사천왕첩(四天王貼)에도 통문(通門)이 있는데 뒷면에서 보면 <그림 11>과 같다.

각 첩(貼)의 바탕천과 지조직은 동일하며 색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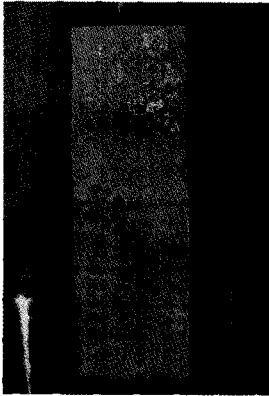
다른 푸른색을 사용했고 수(繡)는 없다. 일월광첩(日月光貼)의 위치는 두 번째 좌폭(左幅) 1단 4장의 셋장인 1장과 2장에 구성되어 있다. 보통 첩은 바탕에 부착되어 있지만, 이 경우는 첩의 위치에 구성되었고 사천왕첩과 같은 색채와 지조직을 사용했으므로 일월광첩이라 할 수 있는데 <그림 12>, <그림 13>과 같다. <그림 14>에서 보이는 서산대사 가사에는 좌측 변폭(邊幅) 상단의 안쪽에 묵서명(墨書銘)이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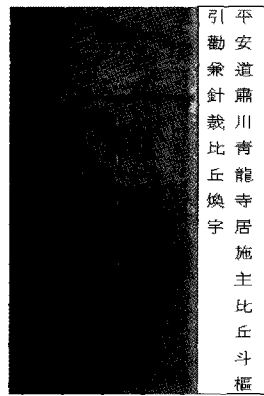
<그림 11> 뒷면에서 본 통문위치와 전개도,
2010. 10. 1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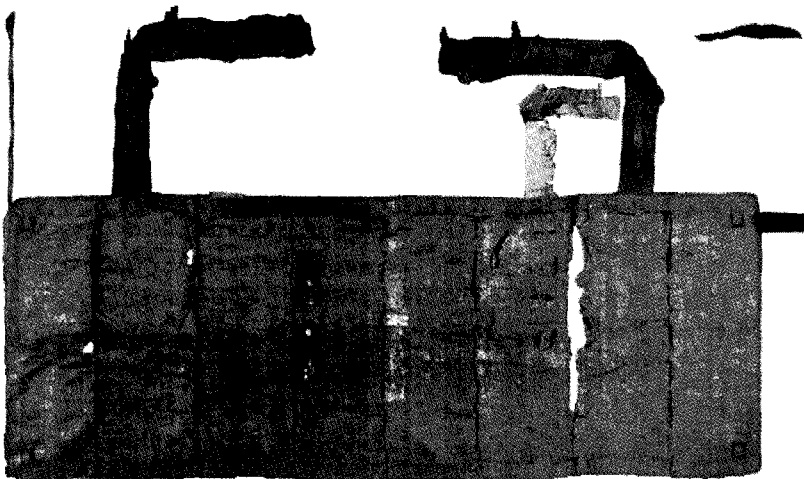
<그림 12> 푸른색의 사천왕침,
2010. 10. 1 조사



<그림 13> 바탕에 구성된 일월광침,
2010. 12. 26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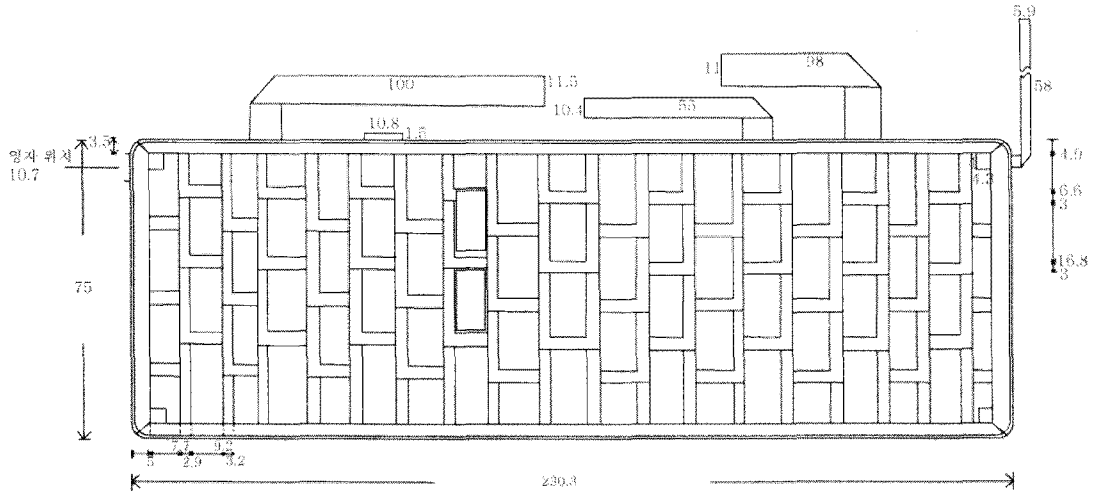
<그림 14> 뒷면에 위치한 묵서명(墨書銘),
2010.10.01 조사



<그림 15> 벽암대사가사. 사진: 화엄사 제공

<표 2> 벽암대사 가사의 기타 색상

의복명칭	인지색		측정값		
	측정부분	Pantone	H	V	C
화염사 인조하사 가사	겉	17-1045TPX	9.06YR	4.97	4.4
	란	17-1036TPX	9.41YR	5.01	4.25
	첩	18-1447TPX	-	-	-
	왼쪽끈(가장 왼쪽)	16-0947TPX	2.09Y	6.59	6.30
	안감	16-5304TPX	8.33GY	5.82	1.89
	왼쪽 주황 어깨끈(겉)	16-1440TPX	3.19YR	5.31	7.69
		16-1338TPX	2.83YR	4.95	8.38
	왼쪽 주황 어깨끈(안)	16-1432TPX	7.53YR	4.27	7.43
	오른쪽 녹색 끈	17-5912TPX	4.83GY	3.7	3.77
17-6212TPX		5.59GY	3.69	3.81	



<그림 16> 벽암대사 가사 전개도

2. 벽암대사(碧巖大師: 1575~1660)가사의 조 사 내용

유물의 구조와 구성요소별로 형태, 치수, 직물, 색채, 문양을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15>는 벽암대 학원 사가사의 실물사진이며, <그림 16>은 가사 전개도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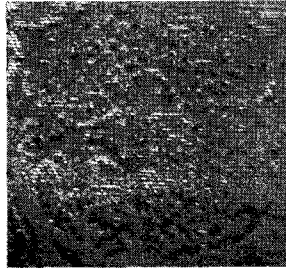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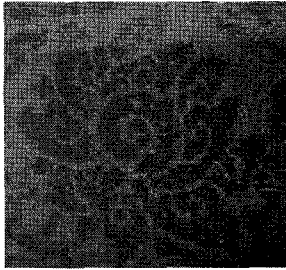
벽암대사가사의 구성은 19조 3장1단 이며, 치수는 가 로 230.3cm와 세로 75cm이다. 품계별로 보면 중상품(中 上品)에 속하는 주황색의 직은단(織銀緞)으로 아청색 안을 낸 겹가사이다. 색채값은 바탕색은 H- 9.06YR · V-4.97 · C-4.4 인지색은 17-1045TPX이다. 란은 H-

9.41YR · V-5.01 · C-4.25 인지색은 17-1036TPX이고 안감 은 H-8.33GY · V-5.32 · C-1.89 인지색은 16-5304TPX 이다. 기타 색상은 <표 2>에서 정리한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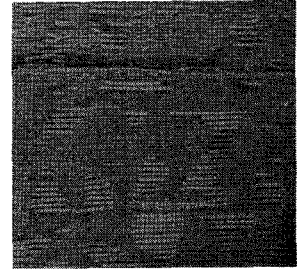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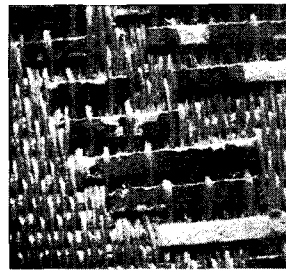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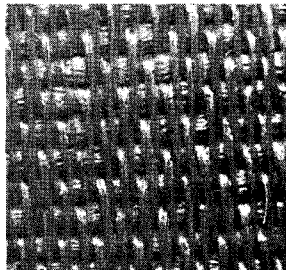
문양은 연화문(蓮花紋)·용문(龍紋)·운문(雲紋) 이 각각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으며 <그림 17>, 지조 직은 5매 2뿔의 경주자조직이고 문조직은 문위사를 은사(銀絲)로 사용한 직은단(織銀緞)이다<그림 18> <그림 19>, 뒷면은 <그림 20>참조.

<그림 21><그림 22>는 평직의 명주로 안감으로 사 용되었으며 조직을 확대한 그림이다.

두께의 바탕은 0.435mm 안감은 0.18mm이며, 바늘 땀 수는 1cm안에 평균 7개씩 들어가 있으며 은박음질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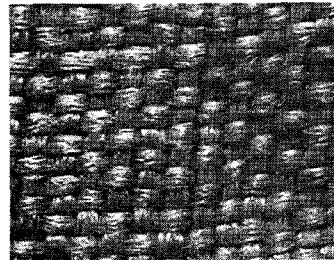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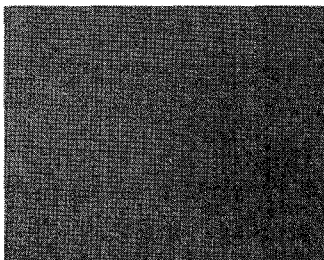
〈그림 17〉 연화문(蓮花紋)·용문(龍紋)·운문(雲紋), 2010. 12. 27 조사



〈그림 18〉 5매 2뿔의 지조직,
2010. 10. 2 조사

〈그림 19〉 은사를 사용한 문조직,
2010. 10. 2 조사

〈그림 20〉 직은단의 뒷면,
2010. 12. 27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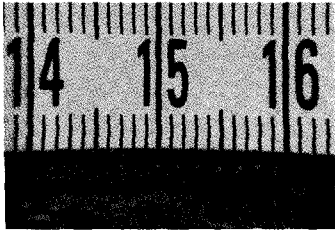
〈그림 21〉 안감 부분, 2010. 12. 27 조사

〈그림 22〉 안감 조직, 2010. 10. 2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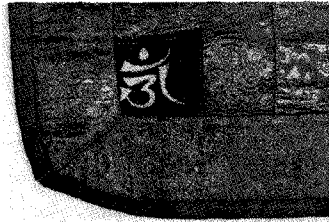
바느질 했다(그림 23). 란 부분은 후대로 내려오면서 착용을 많이 해서 낡은 부분을 보수를 했는데 란의 겉에서 보면 가장자리에 1cm의 선(線)을 둘렀으며(그림 24), 뒷면에서 보면 3.7cm 넓이로 덧대었다. 상침을 보면 겉 부분에는 없고 뒤쪽에서 5~7뿔을 기준으로 해서 상침 한 것이 보이는데, 앞에서 선을 고정 한 후에 뒤쪽으로 넘겨 상침한 것으로 보인다(그림 25).

전체 통문이 존재하지만 란 부분의 통문은 보수천으로 인해 보이지 않으며, 각 첩에는 수(繡)가 있다. 일광첩(日光貼)에는 홍색 바탕에 수미산(須彌山)·이족오(二足烏)·해(日)·채운문(彩雲紋)이 월광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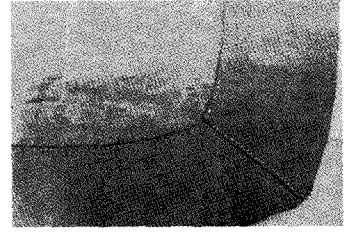
(月光貼)에는 홍색 바탕에 옥토문(玉兔紋)·채운문(彩雲紋)·계수나무·달(月)이 각각 아름답게 수놓아져 있다(그림 26). 위치는 두 번째 좌폭(左幅)의 1단 3장의 셋장인 1·2장에 부착되어 있다. 사천왕첩은 일월광첩과 같은 직물의 홍색 바탕에 금색 실로 음 자가 수놓아져 있다(그림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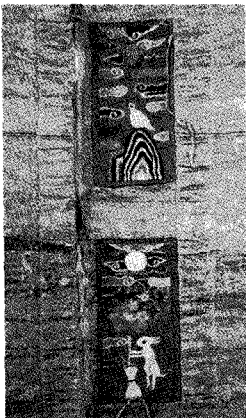
〈그림 23〉엽(葉)부분의 바늘 땀수, 2010. 12. 27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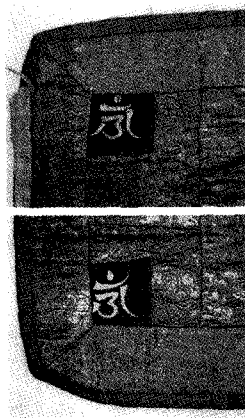
〈그림 24〉란(欄)에 뒀던 선, 2010. 12. 27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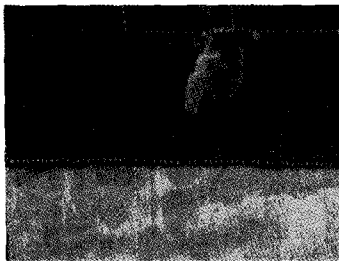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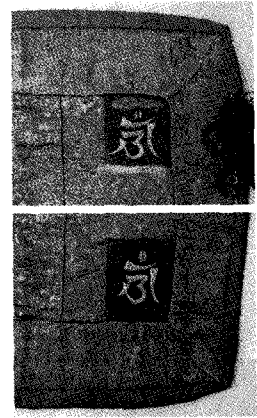
〈그림 25〉란에 뒀던 선 뒷부분, 2010. 12. 27 조사



〈그림 26〉두 번째 좌쪽에 부착된 일월광첩, 2010. 12. 27 조사



〈그림 27〉네귀통이의 사천왕첩, 2010. 12. 27 조사



〈그림 28〉바탕 부분의 촛농, 2010. 12. 26 조사



〈그림 29〉란 부분의 촛농, 2010. 10. 1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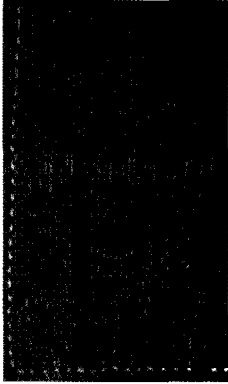
IV. 17세기 서산대사가사와 벽암대사가사의 특징

1. 서산대사 가사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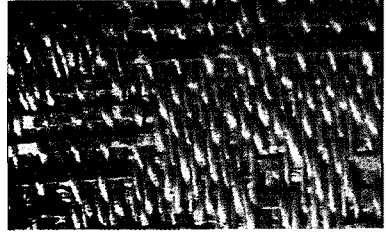
가사란 승려들이 법을 이을 제자에게 발우와 함께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물로 남아 있는 가사는 온

전히 보관되어 있기 힘들다. 서산대사 가사를 보면 촛농이 떨어져 있는 그대로 보관된 것을 보면 이는 임금의 하사품이라도 가사가 큰 법회(法會)에는 적용되어졌다는 증거이다 〈그림 28〉〈그림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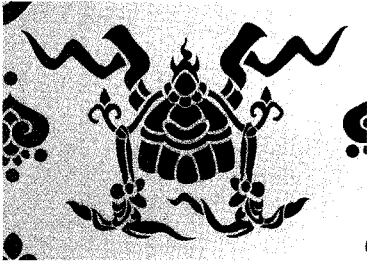
서산대사 가사의 특징으로는 일월광첩이 바탕에 부착되지 않게 구성되어 있어 다른 가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형태이다. 바탕에 특이한 문양이 두개가 배



〈그림 30〉 백개문양, 2010. 12. 26 조사



〈그림 31〉 백개문양 부분, 2010. 10. 1 조사



〈그림 32〉 대홍사가사의 백개 도안, *우리나라 전통 무늬* 1권, 2006, p. 397.



〈그림 33〉 조선금에 보이는 백개 도안, *한국직물문양 이천년*, 2006, p. 2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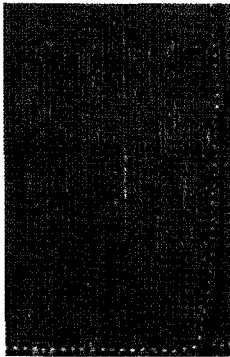
치되어 있는데 바탕의 주자조직 위에 문위사인 편은사(片銀絲)를 봉취직으로 짠 형식이다. 문양은 팔보문(八寶紋) 중의 하나인 백개(白蓋)문양과 보문(寶紋)인 등롱문(燈籠紋)으로 보인다.

〈그림 30〉의 백개는 “개보(蓋寶)” 또는 “보개(寶蓋)”라고 하며, 우산 모양의 덮개로 삼천의 밝음과 일체의 낙(樂)을 두루 덮고, 약으로 병고에 시달리는 중생을 다스림을 상징한다.¹⁶⁾〈그림 31〉은 백개 조직을 확대 한 것이다. 대홍사 소장 의 서산대사 가사에 나타난 팔보문에서 보이는 백개의 도안(그림 32)¹⁷⁾와 일본에서 조선금(朝鮮錦)이라고 전하는 직물로 그 문양은 만자의 기하문을 바탕으로 하고 위에 팔길상문을 침상한 〈그림 33〉¹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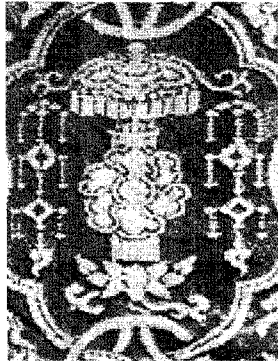
〈그림 34〉의 등롱문은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알리고 축하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등롱문양의 구성에는 일반적으로 백개가 섞여져 있고 양옆으로 구슬을 꿰는 영락을 달아 화려하게 치장되어 있는데¹⁹⁾, 이와

같은 경우는 편은사를 사용했기 때문에 세밀하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다. 〈그림 35〉²⁰⁾는 동래정씨(1600년대) 묘에서 출토된 천금(天衾)으로 단 직물이며, 〈그림 36〉²¹⁾은 홍콩 크리스 홀 소장의 청(淸) 강희년간(康熙年間: 1661-1722) 시기의 7조 가사에 나타난 등롱문이다. 17세기에 사용된 포도송서문을 보면 백개 문양과 등롱문양으로 보이는 것은 나타나지 않고, 포도 잎사귀의 표현과 다람쥐의 배치와 꼬리 표현방법이 조금씩 다르다.〈그림 37〉²²⁾은 충북대박물관 소장 17세기 후반의 홍우협(1655-1691)묘에서 출토된 보공용 직물로 다람쥐가 한가지에 서로 마주 보고 있는 형태이다. 〈그림 38〉²³⁾은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남오성(1643-1712)묘에서 출토된 천금(天衾)감으로 각각의 다람쥐 꼬리 표현을 다르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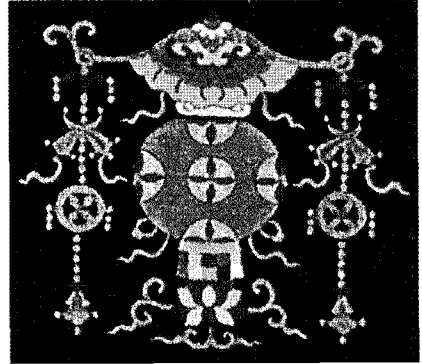
또한 17세기의 가사 유물 중에서 가사를 묶는 끈인 영자(纓子)가 가장 깨끗한 상태이며 〈그림 39〉〈그림 40〉, 가사에 묵서명이 있어 양공승의 존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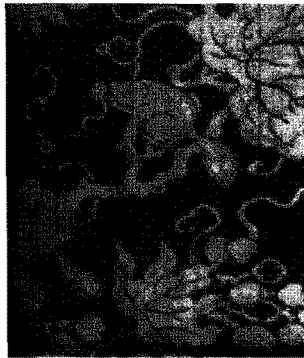
〈그림 34〉 등룡문,
2010. 12. 16 조사



〈그림 35〉 동래정씨 단직물의 등룡문,
조선시대 피륙의 무늬, 2002, p. 188.



〈그림 36〉 청대 7조 가사의 등룡문, *지심귀명례*,
2006, p. 81.



〈그림 37〉 홍우협묘 출토 포도송서문,
우리나라 전통 무늬 직물, 2006, p. 227.



〈그림 38〉 남오성묘 출토 포도송서문,
한국직물문양 이천년, 2006, p. 237.

알 수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平安道肅川靑龍寺居施主比丘斗樞引勸兼針裁比丘煥宇, -“평안도 숙천의 청룡사에 거주하는 두추비구가 권선을 도모하고 환우비구가 만들었다.”²⁴⁾ 일제시대에 제작되어 재발간된 한국사찰사전에서 청룡사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다음과 같다. 『靑龍寺-在平安南道肅川(今入平原郡)悟道山...』²⁵⁾의 내용으로 보면 숙천은 묘향산 일대이기 때문에 서산대사가 1594년 노령(老齡)을 이유로 임금에게 사의를 표하고 승병장을 제자인 사명대사에게 물려주고 묘향산에 돌아간 시기로 보인다. 화엄사 소장의 서산대사 가사는 이시기인 1594년에서 몰년인 1604년 사이에 제작되었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또한 출가를 지리산에서 했고 말년을 묘향산과 지리산에서 보냈다는 내용으로 보면 목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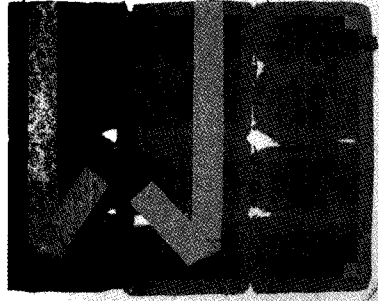
과 서산대사의 행적이 일치한다. 서산대사 가사는 구성요소들의 형태가 온전히 남아 있어 17세기 홀가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있다.

2. 벽암대사 가사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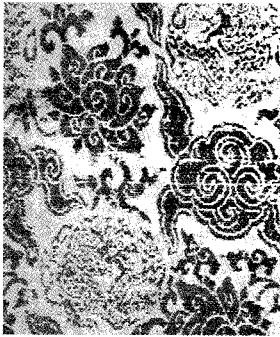
벽암대사 가사에 보이는 영자는 세 쌍의 색채가 각각 다른데 진영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형태이며 사용된 직물은 편은사를 사용해 연화문(蓮花紋)·용문(龍紋)·운문(雲紋)을 고르게 배치해서 직조한 직은단이다.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의 화순옹주(1720-1758) 원삼과 문양이 같으며 편금사로 직조한 직금단으로(그림 41)²⁶⁾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벽암대사의 가사가 왕의 하사품이라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연관성을 추측해 볼 수 있다(그림 42).



〈그림 39〉 좌측 영자 부분, 2010. 12. 26 조사



〈그림 40〉 우측 영자 부분, 2010. 12. 26 조사



〈그림 41〉 화순옹주 직금 원삼, *우리나라 전통 무늬* '직물', 2006, p. 259.



〈그림 42〉 벽암대사 가사 문양, 2010. 12. 27 조사

일월광첩은 수를 놓아 부착되어 있는데, 일월광첩에 해의 상징인 까마귀가 기존의 삼죽오가 아니고 이죽오로 표현되어 있다(그림 47). 이는 조선시대에 보이는 형태인데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약사삼존도(藥師三尊圖: 1565년)에서 일광보살(日光菩薩)의 보관(寶冠) 위에 표현된 일(日)을 상징하는 새가 이죽오로 표현되었으며(그림 43)²⁷⁾, 〈그림 44〉는 보관을 확대한 것이다. 〈그림 45〉²⁸⁾는 홍릉 크리스 홀 소장의 25조 천불(千佛)가사의 부분도이고, 〈그림 46〉²⁹⁾은 일광첩을 확대한 그림으로 새가 이죽오로 표현되어 있다. 선암사 소장의 19세기 쌍용문 가사와 고려대학교 소장의 조선 후기 홍가사에 나타난 일월첩에도 이죽오로 표현되어 있다(그림 48)³⁰⁾, 〈그림 49〉³¹⁾. 자수의 구성에서도 후대의 가사에는 해와 달의 원형 안에 삼죽오와 토끼가 들어가 있는 것과는 다르게 〈그림 50〉³²⁾, 해와 달이 따로 위에 배치되어 있고 이죽오와 토끼는 아래에 있다. 17세기 가사 중에 두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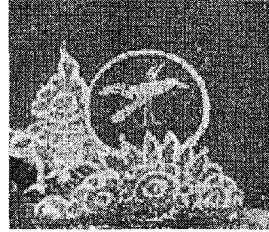
만 일월광첩이 보이는데 유래 등을 살펴보면 입진왜란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선암사 소장의 고려시대 대각국사(大覺國師: 1055~1101) 가사에는 일월광첩이 부착되어 있는데 조사 결과 18세기 가사로 판명되었다.³³⁾ 불가(佛家)에서는 상징적인 귀품은 오래되면 땅에 묻거나 소각해 없애고, 소각 당시의 재료를 사용해 최대한 유사하게 정성을 들여 제작하게 되는데, 대각국사 가사 또한 그러한 경우일 것으로 보인다.³⁴⁾ 이때 당시의 가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일월광첩이 첨가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수(繡)의 구성을 보면 흥배 구조와 비슷한데 이는 왕의 하사 품이기 때문에 승려에게 사여하는 관복(官服)과 같은 의미로 당시의 흥배에서 도안을 착안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일월광첩에 길게 금사가 남아 있는데 테두리에 부착했던 흔적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면 흥배와 같이 금사를 두른 것으로 보인다(그림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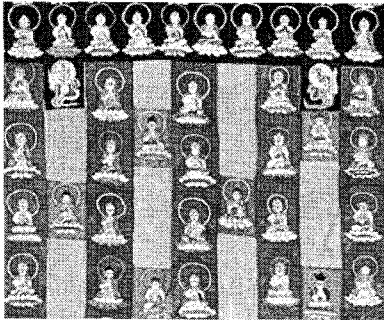
흥배는 정사각형이지만 일월광첩은 가사의 구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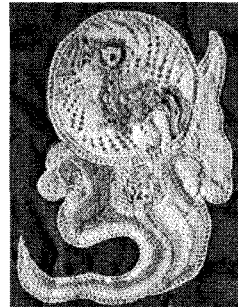
〈그림 43〉 약사삼존도의 일광보살,
한국의 불화 권39, 2007, p.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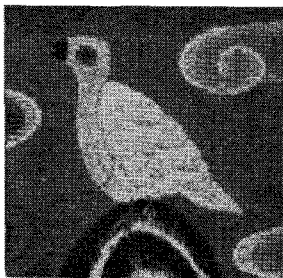
〈그림 44〉 보관 부분도,
한국의 불화 권39, 2007, p. 26.



〈그림 45〉 25조 천불가사의 부분도,
지심귀명례, 2006, p. 187.



〈그림 46〉 천불가사에 표현된 이쪽오,
지심귀명례, 2006, p. 185.



〈그림 47〉 벽암대사가가사 부분,
2010. 12. 27 조사



〈그림 48〉 쌍용문가사 부분,
지심귀명례, 2006, p. 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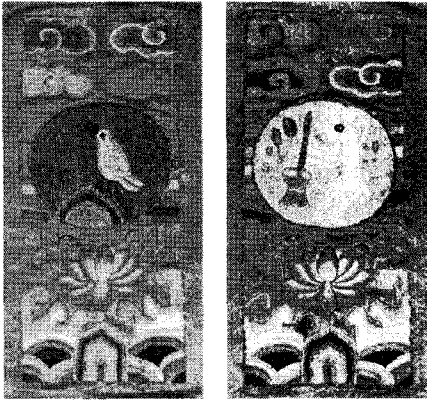
〈그림 49〉 조선후기 가사 부분,
복식류 명품도록, 1990, p. 130.

맞춰 직사각형으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1650년대의 흥배와 비교해 보면 수미산과 채운문의 표현이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그림 52)³⁵⁾,(그림 53)³⁶⁾. 앞으로 일월광첩의 형성과정과 구성형태를 연구하는데 화엄사 소장의 가사 두 점이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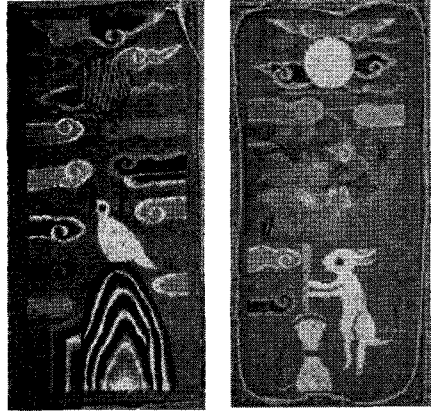
〈표 3〉은 화엄사 소장의 가사 유물 2점을 조사한 내용의 비교표이다.

V. 결론

조선중기 서산대사와 벽암대사 가사유물의 구조와



〈그림 50〉 일·월 상징이 합쳐진 형태,
한국직물문양 이천년, 2006, p. 381.



〈그림 51〉 테두리에 남아 있는 금사,
2010. 12. 27 조사



〈그림 52〉 1650년대 단화홍배, 홍배, 1979, p. 64.



〈그림 53〉 1650년대 단화홍배, 홍배, 1979, p. 67.

〈표 3〉 서산대사 가사와 벽암대사 가사의 비교

조사내용 분류	서산대사 가사	벽암대사 가사
크기	가로 238.2 · 세로 69.3	가로 230.3 · 세로 75
구성	25조 4장 1단의 홀가사	19조 3장1단의 겹가사
색상	주홍색계열 H-1.50YR · V-4.41 · C-8.31	주황색계열 H-9.06YR · V-4.97 · C-4.4
직물	단(緞)	단(緞)
문양	포도송서문 백개 · 등룡문 각 1개씩 있음	연화문 · 용문 · 운문
두께	0.2167mm	0.435mm 안감 0.18mm
바늘땀수(1cm기준)	8~9땀의 온박음질	7땀의 온박음질
영자	모두 있음	부분 있음
사천왕첩	있음 수(繡) 없음	있음 수(繡) 있음
일월광첩	있음 수(繡) 없음	있음 수(繡) 있음
통문	있음	있음

구성요소별로 형태, 치수, 직물, 색채, 문양을 조사한 뒤 특징을 살펴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산대사의 가사에 쓰인 문양을 보면 17세기에 많이 보이는 포도송서문인데, 이시기의 일반적인 포도송서문에서 보이지 않는 백개와 등롱문양이 가장자리에 직조되어 있다. 편은사를 봉취직으로 직조한 이 문양은 가사 전체에 1개씩만 존재하는데 이 문양의 의미는 “약으로 병고에 시달리는 중생을 다스리고,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알리고 축하한다.”로서 이는 서산대사에 대한 존경의 의미를 담은 문화적 상징으로 판단된다.

둘째, 벽암대사의 가사에 보이는 연화·용·운문은 18세기 왕실에서 보이는 것과 문양이 같은데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왕의 하사품이라는 점과 문화의 연속성을 고려한다면 왕실에서는 17세기에 이 문양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셋째, 현존하는 17세기 가사는 4점인데 모두 왕의 하사품이지만 다른 2점은 금직(金織)의 금관가사이므로 첩(貼)이 존재하지 않아 이 시기 첩의 형태를 파악할 수 없는데, 화엄사 소장의 가사에만 일월광첩과 사천왕첩이 존재한다. 사천왕첩의 기원은 8세기로 그후 제작된 가사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지만 일월광첩은 서산대사 가사에서 보이는 세로로 나란히 배치되어 바탕에 구성되어진 모습이 초기의 형태라 생각되며, 벽암대사 가사는 따로 수관을 제작하여 부착시킨 형태로서 일월광첩이 정착되어 가는 과정으로 판단된다. 또한 태두리에 금사를 두른 것과 수미산과 채운문의 모양을 살펴보면 그 구성이 흥배와 유사한 형태인데 이는 왕의 하사품이기 때문에 승려에게 사여하는 관복(官服)과 같은 의미로 당시의 흥배에서 도안을 착안하여 불교적으로 변형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흥배는 정사각형이지만 일월광첩은 가사의 구조에 맞춰 직사각형으로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구성은 임진왜란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며 중요한 단서를 화엄사 소장의 두 가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넷째, 불교와 도교에 근간을 둔 해의 상징인 삼죽오 표현이 유교 국가였던 조선에서 이죽오와 혼용되어 사용된 것은 문관 관복의 날짐승 흥배에서 새를

표현한 것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이러한 혼용은 본 연구의 일월광첩에서 보듯이 단순한 상징차용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새로운 국가체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문화의 상징체계는 상당 기간 동안 교류전승 되는 현상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새로운 국가체제의 도입과 더불어 지배사상으로 유교를 표방한 조선왕조가 국가위난의 어려운 시기에 의승군의 활약과 국가재건사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면서 정치적으로 불교와의 교류관계를 복원하게 되자 은밀히 진행되던 사회문화적인 교류형태는 더욱 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현재 유래하는 조선중기 이후 많은 복식사 관련 유물들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결과로 변화패턴과 교류에 관한 총체적인 접근이 이루어진다면 더욱 진전된 연구결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본 연구는 가사(袈裟)의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이의 시공간적 변화 및 동시대 일반복식과의 교류 과정을 통해 나타난 다양한 모습들을 살펴보고자 했다. 종교복식을 전공하는 연구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1)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12번지, 대한불교조계종 19교구 본사, 백제 성왕 22년(544)창건
- 2) 이지관 (2009). *가산불교대사탑*. 서울: 가산불교문화연구원, p. 193.
- 3) 김경숙, 안명숙 공저 (2005). *한국의 가사*. 서울: 대원사, pp. 7-8.
- 4) 김장향 (1997). *가사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25-26.
- 5) 전관웅 (1994). *불교학대사전*. 서울: 흥법원, p. 1734.
- 6) 강형광 (2010). *조선중기 불교계와 의승군*.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45.
- 7) 김경숙, 안명숙 공저. *앞의 책*, p. 19.
- 8) 임영자 (1990). *한국 종교복식*. 서울: 아세아문화사, p. 107.
- 9) 이지관역 (2003). *역대고승비문 조선편 1*. 서울: 가산불교문화연구원, p. 256.
海南 大興寺 淸虛大師碑文 『己丑逆獄起 爲妖僧所誣 被逮對獄明暢 宣廟素聞其名 卽命釋之 引見 賜御製一絶 及御書墨竹障子 師立進詩謝恩 上益稱賞 厚資還山』
- 10) 성보문화재연구원 (2007). *한국의 불화 권40 보물편*. 경남: 성보문화재연구원, p. 170.

- 11) 조명제, 김탁, 정용범, 원경(이상섭) 역주 (2007). *역주 조계산승광사사고 인물부*. 서울: 혜안, p. 254.
- 12) 신대현 (2009). *획암사*. 대한불교진흥원, p. 139.
- 13) 綺山錫珍編, 曹溪山松廣寺史庫 人物部(筆寫本)-碧巖大師 行狀, 1929. (韓國學文獻研究所, 曹溪山松廣寺史庫, 1977, 亞細亞文化社 영인, pp.551-552) 『… 光海鞠治掖庭目其道氣峻嶒言辭經讜心異之解其纏繳咨訪良久光海甚歡出錦襖二襲分賜 … 戊午(1618)秋遷神輿 … 越明年(1619) … 維時光海設齋於清溪蘭若遣宮使逡師說法授金襴袈裟碧繡長衫仁祖大王踐祚之明年甲子(1624)朝廷城南漢山徵師爲八方都摠攝役訖賜報恩闡教圓照國一都大禪師號又賜衣鉢因遣中使出內醞 … 聖德決決敢不一獻 …』
- 14) 조명제, 김탁, 정용범, 원경(이상섭) 역주. *앞의 책*, pp. 257-259.
- 15) 성보문화재연구원. *앞의 책*, p. 178.
- 16)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02). *조선시대 피륙의 무늬*. 서울: 단국대학교 출판부, p. 206.
- 17) 국립문화재연구소미술공예실 (2006). *우리나라 전통 무늬의 직물*. 서울: 놀와, p. 397.
- 18) 심연옥 (2006). *한국직물문양 이천년*. 서울: 고대직물연구소 출판부, pp. 266-267.
- 19) *위의 책*, p. 258.
- 20)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앞의 책*, p. 188.
- 21) 수덕사 근역성보관 (2006). *지심귀명래*. 충남: 수덕사 근역성보관, p. 81.
- 22) 국립문화재연구소미술공예실. *앞의 책*, pp. 226-227.
- 23) 심연옥. *앞의 책*, pp. 236-237.
- 24) 송광사박물관장. *고경스님 역*.
- 25) 권상로 (1994). *한국사찰사전 上*. 서울: 이화문화출판사, p. 441.
- 26) 국립문화재연구소미술공예실. *앞의 책*, pp. 258-259.
- 27) 성보문화재연구원 (2007). *한국의 불화 권39 국·공립 박물관편*. 경남: 성보문화재연구원, p. 26.
- 28) 수덕사 근역성보관. *앞의 책*, p. 187.
- 29) *위의 책*, p. 185.
- 30) *위의 책*, p. 78.
- 31) 고려대학교 박물관 (1990). *복식류 명품도록*.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p. 130.
- 32) 심연옥. *앞의 책*, p. 381.
- 33) 박성실, 심연옥, 이은주 (2003). *중요민속자료 조사보 고서-선암사 소장 가사·탁의 문화재청*, pp 1-50.
- 34) *위의 책*, p. 31.
- 35) 석주선 (1979). *풍배*. 서울: 단국대학교 출판부, p. 64.
- 36) *위의 책*, p. 67.